

목회자 사모의 경험 이해를 위한 현상학적 연구: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송 경 화*

국문초록

목회자 사모들은 상담을 많이 하지만, 본인들은 상담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사모들을 위한 기독교 상담을 개발하고 그 기회를 확장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학자들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모의 삶이 어떤 것인지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일이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사모의 삶을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8명의 사모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16개의 주제와 이들을 포괄하는 6개의 범주를 얻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사모들은 사모의 역할을 성도의 어머니 역할과 남편 목사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모들은 자신을 평신도와 사역자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두면서도, 남편 목사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결과로 기뻐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였다. 그들은 사모이기에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사모들은 사모의 삶은 힘든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에는 관계의 단절, 속박감, 스트레스,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포함되었다.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사모들이 사용한 방법은 인내, 기도, 자기 개발이었다. 사모이기에 좋은 점도 언급하였는데, 성도들로부터 받는 특별대우,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 그리고 사모가 발휘할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언급하였다.

주제어: 사모, 기독교 상담, 현상학적 연구, 질적 연구, 심층 기술

• 논문 투고일: 2020년 3월 27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4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9일

* 윌드미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I. 여는 글

교회 내에서의 기독교 상담은 목회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목회 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목회 상담은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목회적 돌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명칭과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목회자에 의해 제공되어 왔다(Patton, 2005: 849).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목회상담을 주로 담당한 목회자로는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들과 선교사 사모들, 교회 장로들과 목사들, 전도 부인들이었으며 현재는 교회 목사와 사모, 여전도사를 포함한 교역자, 그리고 장로를 포함한 평신도 지도자들, 훈련을 받은 전문 기독교 상담가들이다. 이 중에서 특히 사모는 목회상담에 있어서 매우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정숙(1995: 197)에 의하면, “여성 신자가 거의 대부분인 한국 교회의 실정에서 사모의 상담 사역은 협력목회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사모가 하는 사역 가운데 상담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목회상담의 중심에서 교인들에게 목회적 돌봄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모들이 정작 본인들은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상담과 돌봄의 수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장은진, 2008: 189). 결과적으로 사모들은 사역이 장기화될수록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스트레스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문제들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사모를 위한 기독교 상담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김보람 외, 2019; 반신환, 2000; 장은진, 2008).

실천 신학은 이와 같은 실제 상황에서 직면하는 문제에서 신학적 논의를 시작한다(Miller-McLemore, 2010). 목회상담의 주요 제공자인 사모들이 목회/기독교 상담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보아 넘기지 않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며,

더 나아가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기준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는 현재 상황에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실천 신학자의 주요 임무이다(Swinton & Mowat, 2006: 13). 이와 관련하여 실천신학자인 Richard Osmer(2008, 4)는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과제를 소개하였는데, 현재 당면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기술적-경험적 과제(descriptive-empirical task), 현재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제공하는 해석적 과제(interpretive task), 현재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과제(normative task),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적 과제(pragmatic task)이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이 네 가지 과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첫 번째 과제인 기술적-경험적 과제를 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모들의 현재 상황과 그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 외 세 가지 과제들은 추후 연구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실천 신학의 최종 목적인 현재 상황에서의 실제적 변화 추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바로 현재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즉, 사모들을 위한 기독교 상담을 개발하고 사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모들의 삶을 직접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실천 신학의 기술적-경험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사모로서의 삶’이라는 경험의 핵심적 본질(essence)을 심층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면 사모를 위한 상담에 관심하는 기독교 상담학자들에게 매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현재 사모들의 삶에 관한 문헌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사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상술하는 일종의 지침서(김남준, 2008; 장달윤, 2007; 전요섭 외, 2008; 현성희, 2007), 사모가 자신의 삶에 대해 에세이 식으로 서술한 글(설화영, 2004; 이견숙, 2013; 이은숙, 2010; 침례

회전국사모회, 2009), 여성주의 관점에서 사모가 처한 가부장적 상황을 비판하는 논문(김성은, 1991; 양혜원, 2013), 그리고 사모 상담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논의한 글(반신환, 2000; 반신환, 2003; 반신환, 2006; 이희녕, 2007; 장은진, 2008)이다. 이 문헌과 연구들의 자료로 사용된 사모의 삶의 모습은 저자 자신의 경험이나 몇몇 사모들의 예화들이 포함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양적 연구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모로서의 삶'의 공통되는 핵심적 본질을 심층적으로 기술한 질적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사모는 목사의 아내라는 특수한 위치로 인해 평신도의 아내와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하며, 비록 개인차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모들 간에 공유되는 공통된 경험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사모로서의 공통된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이 목적을 위해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이 현상학적 연구이다. 왜냐하면, 현상학적 연구는 특정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몇 명의 경험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그 현상의 핵심적 본질을 찾아내는 질적 연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모를 위한 기독교 상담의 필요성과 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사모로서의 삶'의 공통되는 핵심적 본질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통해 사모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현상(phenomenon)의 실제 경험(lived experiences)

의 핵심적 본질(essences)에 대한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을 도출하고자 하는 체계적 질적 연구법(systematic qualitative method)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실제로 경험한 개인들이 그 현상의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심층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다. (Creswell, 2013: 76, 79). Swinton과 Mowat(2006: 105)에 의하면,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풍부한 통찰과 생생한 이해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을 통해 “돌봄을 실천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얻은 깊이 있는 이해가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 분야에서 현상학적 연구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처음 제안한 철학자 Edward Husserl(1964)은 인간 경험의 본질을 잘 기술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과는 다르지만 또한 그것만큼 철저한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Husserl(1964: 33-35)은 인간의 관념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철학 분야에서 연구자의 배경 지식, 사전 경험, 편견 등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연구가 방해를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Husserl(1964: 33; 1900-1901: 252)은 “완전히 절대적인 자료, 순수한 현상”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모든 것—선행 지식, 이론, 가설, 측정 방법, 선입견, 가치관, 주관적 경험 등—을 일시 중지(*epoché*) 하고 오직 “현상 경험 그 자체에만(*zurück zu den Sachen selbst*)”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Husserl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그 이후에 연구자의 경험, 지식, 믿음 등을 완전히 일시중지(*epoché*) 시키는 방법을 고수하는 초월론적 현상학(transcendental phenomenology)과, 현상의 본질을 해석하는 데 연구자의 사전 지식과 경험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해석학적 현상학(hermeneutical phenomenology)으로 나뉘어 발달하게 되

었다.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사전지식과 판단의 일시중지(*epoché*)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두 극단의 중간에서 유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필자는 연구자의 사전 지식과 판단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Husserl의 의견에 동의한다. 동시에, 연구자 역시 사람이기에 Husserl의 일시중지(*epoché*)의 방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우며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어떤 연구도 불가능하다는 해석학적 현상학자들의 의견 역시 맞다고 판단한다. 연구 방법론자인 Creswell(2013)도 일시중지(*epoché*)는 연구자가 시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 각자가 자기 나름의 일시중지(*epoché*)에 대한 정의와 방법을 새롭게 정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자료 수집의 단계인 면담과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최대한의 일시중지(*epoché*)가 시행되어야 사모들의 경험을 순수하게 본질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도출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변화를 위한 방법을 논의할 때에는 연구자의 사전 지식과 신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실천 신학적 논의란 연구자와 연구 대상, 그리고 신학적 개념들의 상호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모든 지식과 신념은 신학적 대화의 자료가 될 수 있다(Browning, 1996; 36). 그러므로, 필자는 본 현상학적 연구를 실행함에 있어 면담과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본인의 모든 가정, 이론, 사전 지식과 경험을 일시중지(*epoché*)하고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료를 접하도록 노력하였다. 물론 이런 노력은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노력이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는 해석이나 경향성까지는 필자가 통제할 수 없음을 또한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자료 수집과 분석의 단계에서 일시중지(*epoché*)를 시행하기 위해 연구 대상인 '사모로서의 삶'과 관련된 필자 개인의

경험과 선입견에 대해 미리 분명히 밝힐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필자의 경험과 선입견이 연구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을 경험한 소수의 사람을 심층 면담하여 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그들 간에 공통되는 핵심적 본질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면에서 현상학적 연구는 ‘목회자의 아내’라는 특수한 현상을 경험하는 몇 명의 사모들을 심층 면담하여 사모로서의 삶이라는 현상의 핵심적인 본질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연구 방법이 된다. 사모들이 사모가 아니라면 경험하지 않았을 그들만의 특수한 고통, 기쁨, 힘과 영향력 등의 경험은 현상학적 연구로 잘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모들이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도 또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사모의 삶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결과적으로 사모들을 위한 상담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초 단계가 될 수 있다.

모든 질적 연구가 그렇듯이,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즉, 이 연구의 결과는 모든 사모의 경험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질적 연구의 목적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 현상의 풍부하고 심층적인 이해과 기술이다(이명선 외, 2018: 2-3). 하지만, 그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면 동의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그 현상의 공통되는 핵심을 기술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Swinton & Mowat, 2006: 47).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사모로서의 경험의 공통 핵심을 기술함으로써 이후 사모를 위한 기독교 상담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얻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자세한 연구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사모의 삶’과 관련된 필자의 경험, 지식, 태도 등을 밝히는 것이 그것들이 자료 수집과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일시중지(*epoché*)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것은 또한 독자들로 하여금 연구 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과 위치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먼저, 필자는 보수적인 한국 장로 교단에서 안수 받은 남편과 함께 15년을 사역하고 있는 사모이다. 15년 사역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사모인 친구들과 교제를 해 왔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목회 사역을 했다. 또한 필자는 실천 신학, 특히 기독교 상담과 목회 상담을 전공한 학자이며 상담가이다.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서 사모는 없지만 친구, 제자, 동료 중에 사모들이 많이 있어 다양한 사모들의 경험을 들은 바 있다. 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박사 과정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여성 신학을 강조하는 여자 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였고, 미국에서는 여성 신학, 해방 신학, 과정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현대의 실천 신학과 목회 상담을 공부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이 필자의 연구 과정과 내용에 영향을 주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지금까지 필자가 접한 사모와 관련된 책과 논문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사모를 인내와 순종을 실천하는 현모양처로 그리고 있으며, 많은 사모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인정받지 못하며, 그렇기에 사모로서의 삶은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이라고 표현되었다. 필자 역시 사모로 살아오면서 억울하고 힘든 경험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모들에 대해 연민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것이 필자가 사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태도이다.

본 현상학적 연구를 위해 필자는 8명의 사모들과 심층 면담을 하여 원 자료를 얻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연구의 기준과 목적에 맞는 참여자들

모집했다는 점에서 의도적 표본 추출 (purposive sampling)이라 할 수 있다(이명선 외, 2018: 48). 이 연구를 위한 면담 참여자의 조건은 한국 교회 목회자 사모들의 '사모로서의 삶'을 충분히 경험해 본 사람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남편이 목사로서 한국 내 지역 교회에서 10년 이상 사역한 경험이 있는 분. 이런 기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사모들—예를 들어, 10년 미만의 사역 경험을 가진 상대적으로 젊은 사모들,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사모들, 지역 교회가 아닌 특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모들 등—의 소중한 경험들은 연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는데, 배제된 사모들의 경험은 후속 연구들에서 다루어 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면담 참여자들을 모집한 방법은 눈덩이 표본 추출(snowball method)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자가 두 명의 사모들에게 개인적으로 면담을 부탁했으며, 그 두 명의 사모들이 다른 사모들을 추천해서 면담으로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모집했다. 이 방법은 의도적 표본 추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면에서 본 연구를 위해 적절한 참여자 모집 방법이었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적절한 면담자 수는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25명 정도이다(Creswell, 2013). 눈덩이 표본 추출법을 통해 필자는 최종 8명의 사모들을 면담자로 모집할 수 있었다.

면담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6명이 50대였고 2 명이 60대였다. 8명 사모들의 남편들 중 2명이 부목사였고 4명은 담임 목사였으며, 1명은 은퇴했고, 1명은 현재 사역지를 구하는 중이었다. 8명 중 5명은 서울 거주자였고, 2명은 경기도, 1명은 세종시 거주자였다. 사역하는 교회는 10여명 성도가 있는 개척교회, 100여명의 중소 교회, 그리고 500명 이상의 중형 교회가 포함되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먼저 전화로 간단히 연구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면담을 위한 약속을 잡고 필자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각 면담은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은 연구 동의서를 읽고 사인을 했는데, 연구 동의서에는 이 연구의 목적, 방법과 기간, 연구자 연락처, 연구 참여의 잠재적 유익과 피해 가능성, 면담 과정의 녹음에 대한 동의와 비밀 유지의 원칙, 도중에 그만둘 권리와 연구에 대해 알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한 명의 사모를 제외하고 7명의 사모와의 면담 내용은 전부 음성 녹음을 하였다. 제외된 한 명의 사모는 녹음을 거절하였기에 녹음을 할 수는 없었고, 대신 면담이 끝난 직후에 필자가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면담의 내용을 기록하였고, 면접 당일 저녁에 그 사모로부터 서면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 이 두 가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면담을 통해 ‘사모로서의 삶’의 핵심적 본질을 찾아내고 그것을 사모를 위한 기독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자는 미리 5개의 질문을 준비하였다: 사모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모였기에 힘들었던 것과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모로서 가진 강점이나 힘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힘들 때 어떻게 해결해 왔나요? 당신에게 사모로서의 삶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이 5개의 질문 외에 면담자의 대답에 따라 다양한 후속 질문들도 병행되었다.

면담을 통해 얻어진 원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필자는 Paul F. Colaizzi (1978)와 Amedeo Giorgi(1975)가 제시한 현상학적 자료 분석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그 분석법은 개방적 읽기(open reading), 중요한 문장(significant statements) 찾아내기, 주제(themes) 추출하기, 의미 고찰하기, 체계적으로 기술하기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먼저 개방적 읽기를 위해, 면담이 모두 끝난 후에는 녹음된 것을 들으면서 전체 면담 내용을 대화록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나서 기록된 대화록을 반복하여 읽었다. 이 단계를 개방적 읽기라 부르는 이유는 어떤 편견이나 사전 지식을 차단하고(epoché) 그 현상에 대해 마치 처음

대하는 것 같은 개방적인 태도와 호기심으로 면담 자료를 읽어 나가기 때문이다(Moustakas, 1994: 34). 필자 역시 이미 알고 있는 사모의 삶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을 일시 중지시키고 면담 자료를 새로운 세상을 대하는 마음으로 개방적인 자세로 반복해서 읽었다.

개방적 읽기를 하면서 8명의 면담자의 내용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문장(significant statements)들을 골라냈다. 이 중요한 문장들은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 판단된 많은 문장들 중 대부분의 면담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었다. 자료 분석을 마쳤을 때는 77개의 중요 문장들이 표시가 되었고, 이들 중 비슷한 것들끼리 연결하여 의미 있는 주제(themes)를 구성하게 되었다. 먼저 총 29개의 주제들이 다음과 같이 추출되었다. 어머니 역할, 평신도와 목사님의 중간, 나눌 수 있는 교제권의 박탈, 사모의 역할-남편 씨포트, 인내, 목사님에게 미치는 사모 영향력, 성도들 직접 접촉, 목사에게 함부로 하는 교인들로 인한 고통, 부부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인내와 양보, 상담이 필요하지만 상담 받을 사람이 없음, 자녀 양육에의 한계와 어려움, 구속/속박, 고통 극복-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도, 교인의 시선/평가/기대, 사모로서의 특권과 힘, 목회 열매로 인한 기쁨, 모르고 시작함, 감사와 책임감,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 교회보다 사모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부담/스트레스, 이혼에 대한 심각한 고려, 개인 신앙에 대한 성장, 드러나지 않음, 남편이 사역에 대한 기대에 못 미쳐서 답답함, 자기 희생/헌신, 사생활 없음, 고통의 극복-자기 개발/공부/직장, 사모로서의 권위. 이 중에서 '사모로서의 삶'의 핵심적 본질은 아니라고 판단된 13개의 주제들을 삭제하고 비슷한 주제들은 통합하여 최종 16개의 주제들이 얻어졌고(어머니로서의 사모, 남편 목사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 목회자도 평신도도 아닌 애매한 위치, 사역으로 인한 기쁨과 고민, 부부 관계에 부정적 영향, 자녀 양육에의 어려움, 관계의 단절, 속박, 스트레스, 타인

의 판단과 시선, 인내, 기도와 믿음, 자기 개발, 특별대우, 개인 신앙의 성숙, 힘과 영향력), 이 주제들은 의미 고찰을 통해 다시 6개의 큰 범주(사모의 역할, 사역, 가족, 심리적 고통, 대처방법, 사모여서 좋은 점) 안에 포함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핵심 주제들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바로 이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사모로서의 삶'의 핵심적 본질에 대한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이며, 본 연구의 핵심으로서 다음 장에서 제시될 것이다.

<표 1> 분석 결과표

범주 (Categories)	주제(Themes)	진술문 예 (Examples of Significant Statements)
1. 사모의 역할	1. 어머니로서의 사모	"사모라면 일단은 풀어 주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2. 남편 목사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	"제가 하는 역할은 남편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써포트 하는 역할이죠."
2. 사역	3. 목회자도 평신도도 아닌 애매한 위치	"사모는 평신도보다는 좀 더 헌신되었지만 목사님 만큼은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 붓지는 않는...그런 사람?"
	4. 사역으로 인한 기쁨과 고민	"너무 힘들다가 좀 열매가 생긴 거예요. 작게라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청년들이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걸 보는 게 정말 행복했던 거 같아요."
3. 가족	5.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퍼버어대면 나도 한 마디 하고 싶은데 목사라 그러지도 못하고 혼자 방에 처박혀서 울기만 했지요. 애들 보기도 엄마는 바보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떡해요. 사모가 참을 수 밖에요..."
	6. 자녀 양육의 어려움	"목회를 위해서 내 아이 희생시킨 거, 그리고 성도들이 아이한테 함부로 할 때 그러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그런 애를 보면 안쓰럽고 그렇죠."
4. 심리적 고통	7. 관계의 단절	"사모로서 힘든 점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상담할 수 있는, 털어 놓을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4. 심리적 고통	7. 관계의 단절	“사모로서 힘든 점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상담할 수 있는, 털어 놓을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8. 속박	“그 25년 간 개척 목회라는 상황 속에 갇혀서, 억류되어서 살아왔지요.”
	9. 스트레스	“우울증이 심했어요. 이례서 자살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잠도 잘 못자구요. 가슴이 자주 두근거려요.”
	10. 타인의 시선과 판단	“남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사모가 되었는데, 기준이 딱 있더라고요. 사모는 이래야 돼. 조심해야 돼. 저는 몰랐죠. 사모가 되기 전에는...”
5. 대처 방법	11. 인내	“그냥 참고 견뎌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 같아요. 무조건 참고, 피하고, 넘기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해 왔지요.”
	12. 기도와 믿음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지요. 기도 밖에는...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감사 제목도 생기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 같아요.”
	13. 자기 개발	“사모로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기도가 첫째이고, 둘째는 꾸준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6. 사모여서 좋은 점	14. 특별대우	“난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냥 나를 생각해 주고 섬겨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너무 행복했던 거 같아요.”
	15. 개인 신앙의 성숙	“돌이켜보면 내 사모의 경험은 하나님하고 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해 준 과정이라고 보여요. 사모가 아니었으면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을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거 같아요. 사모였기 때문에, 매달릴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 같아요.”
	16. 힘과 영향력	“사모가 가지는 파워는 일단 성도들에 대한 파워가 있지요. 성도들, 특히 여성도들은 사모를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 같아요. 사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남편 목사에 대한 영향력이죠. 목사님이 가장 약할 수 밖에 없는 대상이 사모니까, 목사님들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사모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사모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사모의 의견이 중요하게 고려되지요.”

3. 사모의 삶 경험의 심층 기술 (Thick Description)

Creswell(2013: 194)에 의하면,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한 종합적 기술이 바로 그 현상 경험의 “핵심적 본질이며 현상학적 연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모로서의 삶’이라는 현상에 대한 종합적 기술을 위해 8명의 사모들과의 심층 면담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 제시된 결과는 면담을 한 8명의 사모들의 경험으로부터 추출된 것이므로 앞으로 ‘사모들’이라 하면 면담에 참여한 사모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또한 개인 면담자를 언급할 때는 이름 대신 A, B, C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면담한 사모들은 공통적으로 사모의 중요한 역할로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성도와 교회를 돌보는 어머니 역할과 남편 목사의 사역을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돕는 조력자의 역할. 둘째, 사모들은 자신을 평신도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남편 목사의 사역에 동참했으며 사모들의 기쁨과 걱정은 대체적으로 이 사역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셋째, 면담한 사모들은 공통적으로 사모이기에 겪어야 하는 가족 내의 문제들—특히 부부 관계와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넷째, 사모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언급을 하였는데,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다는 것, 성도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신체적/심리적 탈진 등이 포함되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사모들은 공통적으로 속박된 느낌을 갖는다고 고백하였다. 다섯째, 이런 고통을 이겨 나가는 방법으로 사모들은 인내, 기도, 교육이나 직장 등의 자기 개발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사모들은 사모이기에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말했다. 여기에는 남편 목사와 함께 받게 되는 특별대우, 더 깊고 풍부해진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사모

로서의 힘이나 영향력이 포함되었다. 이 분석 내용에 대한 심층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사모의 역할

(1) 어머니로서의 사모

사모들은 자신을 성도들의 어머니로 생각했다. ‘어머니’라는 단어에는 다른 사람을 물질적, 정신적,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모는 성도들의 다양한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곤 하는데, 여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음식이나 여러 물품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포함되었으며 심지어는 아이 돌보기, 운전해 주기, 안마해 주기 등과 같은 서비스도 언급되었다. 이처럼 물질적 돌봄을 제공하는 어머니일 뿐 아니라, 사모들은 자신을 성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어머니로 생각했다. 이런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상담자”나 “친정 엄마”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상담자로서의 사모는 성도들이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마음 편히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 놓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친정 엄마로서의 사모는 성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품어주는, 그리고 뭐든지 다 퍼 주는 사람으로 그려졌다. 또한, 영적인 어머니로서 사모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성도 사이, 혹은 하나님과 목사 사이를 중재하는 영적인 중재자로 여겨졌다.

사모가 이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모에게 성도들이 직접 접촉하기 쉽고 다가가기 쉽기 때문이라고 언급되었다. 사모는 목사보다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사모의 접근 용이성—사모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어머니 역할의 이유이기도 했고 결과이기도 했다. 즉, 사모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이 용이하며, 또한 어머

니 역할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남편 목사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

모든 면담 사모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남편 목사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남편 목사를 돕는 방법은 사모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했는데, 남편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것, 남편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살피고 섬기는 것, 남편의 사역을 위해 사모 개인의 것을 포기하는 것, 남편 목회의 일부분을 함께 하거나 맡아서 책임지는 것, 남편이 경제적 걱정 없이 사역에만 전념하도록 경제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남편의 설교와 사역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 등이었다. A 사모는 사모의 조력이 목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사모의 도움이 없다면 목사의 사역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모든 사모들은 이와 같은 남편 목회의 조력자 역할은 보이지 않아야 하거나 최소한 남편 목사의 활동보다는 덜 눈에 띄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회는 사모가 아닌 목사가 하는 것이므로 사모는 남편 뒤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말없이” 등이었다. B 사모는 자기가 남편 목사보다 사역을 더 잘 해서 좋은 열매가 나오면 남편이 언짢아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B 사모는 어떤 사역의 부분을 자기가 하게 될 때에는 남편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한다고 하였다.

2) 사역

(1) 목회자도 평신도도 아닌 애매한 위치

사모들은 스스로의 위치를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애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말하였다. C 사모는, “사모는 목회자인 동시에 평신도이지요.

한편으로는, 목회자도 될 수 없고 평신도도 될 수 없는 게 사모인 거 같아요. 참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하였다. 사모들은 남편 목사를 도와 목회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남편과 동등한 목회자로 여기지 않았다. 남편 목사보다는 권위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A 사모는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사모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고, 이와 유사하게 B 사모도 “사모는 그저 도울 뿐이지 목회의 주체는 목사님이지요” 라고 표현했다.

사모가 아무리 많은 목회적 역할을 감당해도 사모는 목사와 같을 수는 없고, 오히려 여전히 목사의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평신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다른 평신도들과는 달랐는데, 사모에게는 다른 평신도들에게 기대되지 않는 많은 역할들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목회 현장에서의 사모의 역할은 교회마다, 목사마다 다 다르고 공통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 면담 사모들은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

(2) 사역으로 인한 기쁨과 고민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했느냐는 질문에 사모들은 공통적으로 목회 사역에서의 열매와 관련된 대답을 했다: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성도들이 목사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성도들 중에 전임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이 나왔을 때 등이었다. 마찬가지로, 언제 가장 걱정이 되고 불안했느냐는 질문에도 목회 사역과 관련한 답변이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났을 때,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약해질 때,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심할 때, 성도들이 목사를 욕하고 비난할 때, 목사 설교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못 끼칠 때 등이었다. 이를 통해 사모들은 남편 목사의 목회 사역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책임도 느끼면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회의 결과가 사모들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다. 물론 사모들에게 목회의 영역 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기쁨과 걱정이 있겠지만, 면담에서

사모들은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오직 목회 결과와 관련된 기쁨과 걱정만을, 그것도 상당히 길게, 이야기했다.

3) 가족

(1) 부부 관계에의 영향

사모들은 남편이 목사라는 것이 그들의 부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하였다. 첫째로, 그들은 가정에서도 남편을 목사로 대하게 된다고 하였다. 호칭도 ‘여보’ 나 ‘당신’ 보다는 ‘목사님’ 을 종종 사용하게 되고, 집에서도 교회에서처럼 남편 목사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다. H 사모는 “목사님을 모시고 산다”는 표현을 했다. 사모들은 간혹 갈등이나 다툼이 생겨도 목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C 사모의 다음 진술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녀가 일반적으로 참기만 한다는 것을 잘 표현해 준다:

어쩔 때는 남편이 저한테 이유도 없이 분노를 폭발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무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저도 같이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싶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에게 제가 어떻게 함부로 말대답이나 심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 목사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잖아요...남편이 사역 때문에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그걸 어디 풀 데가 없어서 집에 와서 저한테라도 푸는 건데...그걸 성도들한테 풀 수는 없잖아요...그러니 저라도 그냥 받아 줘야지요. 그렇게 항상 참고 견디면서 넘어갔던 거 같아요.

둘째로, 그들은 ‘나만의 남편’ 이 아닌 ‘성도 전체의 남편’ 과 살고 있다는 말을 했다. 육체적 접촉만 제외하고 그 외의 목사의 모든 관심, 사랑, 에너지, 시간 등은 사모가 혼자 독차지할 수 없고 모든 성도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D 사모는 “우리 부부는 부부라기

보다 그냥 공동 사역자라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인 거 같아요. 성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남편을 양보해야 하지요. 남편이 온전히 저만의 것인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게 종종 저를 우울하게 만들지요” 라고 하였다.

세 번째로, 사모들이 느끼는 남편 목사들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 중의 하나는, 남편 목사들이 목회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 양육이나 교육을 포함한 모든 가정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점이다. E 사모는 자기의 남편 목사는 목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정의 모든 일은 사모가 혼자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F 사모는 “집에 있으면 제가 싱글 맘 같이 느껴져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사모들은 부부 관계에서 고민이 많고, 8명의 면담자 중 4명의 사모들은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했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혼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목사였기 때문이었다. G 사모는 이렇게 말했다: “그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직작에 이혼을 했었을 거예요. 목사여서 못했던 거죠. 목사가 이혼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욕된 일이에요. 가뜩이나 교회와 목사가 지탄받는 이 시대에 제가 거기에 하나 더 더하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2) 자녀 양육에의 어려움

사모들은 그들이 사모이기에 자녀 양육에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충분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많은 목사들의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사모가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사모들은 공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심리적인 제약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물건을 사주거나 비싼 사교육을 시키거나 풍성한 지원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충분히 못 해 주어 자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로는, 목사들이 자녀 양육보다는 목회에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사모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압력 때문에 사모들은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 해도 그것을 성도들에게는 숨기려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교회에서 자녀들은 항상 목회자 자녀로서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면 안 되고, 다른 또래 아이들에게 항상 양보해야 하는 입장을 강요받았다. 결과적으로 사모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남들보다 귀하지 않고 가치가 없다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사모들은 가슴이 많이 아프다고 하였다. 다음 두 명의 면담자의 진술이 사모들의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H: 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모든 혜택을 당연한 것처럼 누렸었는데, 내 아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현듯 알게 되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속상해요. 그게 내가 목사와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들한테 너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A: 사모로 살면서 힘든 거라고 하면...우리 딸을 키우는 거요. 딸을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건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성도들의 시선을 너무 지나치게 신경 써서 그랬던 거 같아요. 항상 우리 애 보다는 성도들이 우선이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애는 항상 혼자 남겨져 있곤 했죠. 심지어 우리 딸은 자기가 주워 온 자식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4) 심리적 고통

(1) 관계의 단절: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의 부재

사모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고통 중 하나는,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한 친구들도 역시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기에 사모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했다. “너는 사모잖아. 네가 감당해야지. 네가 더 노력해야지.” 이런 대답만 돌아오기에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남편 역시 좋은 대화 상대가 못 되었다. 사모 입장에서 자기 문제 때문에 남편을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자주 자기의 속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거니와, 어렵게 말을 꺼내도 남편이 “사모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하는 식으로 공감보다는 판단의 말을 듣게 되니 결국 남편과도 깊은 속 이야기는 못 한다고 한다. 간혹 사모들의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사모들 중에도 서로 모습과 상황이 너무 달라 공감을 받기 보다는 비교되고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후로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모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볼 생각은 해 봤지만 실제로 받아본 적은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는 먼저 사모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찾기가 어려웠으며, 혹시 있더라도 그런 상담에 쓸 만한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사모들은 아무와도 속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져 여러 심리적/신체적 증상을 겪었다고 언급하였다. B 사모의 진술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내가 사모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예요. 제 속에 있는 것을 전부 적나라하게 말하면, 덕이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옛날에 청년이었을 때는 편하게 하던 이야기들도 이제는 말을 하려다가 멈추죠. 그래도 내가 사모인데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덕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문을 막죠.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개네들은 집사들이거든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죠. 너는 사모잖아, 너는 이런 것들을 다

참아 내야지, 네 사명이잖아, 네 의무잖아...이런 말들. 개네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어쨌든 집사들이니까. 저한테 위로가 안 되죠. 그래서 사모 모임에 참석해 봤어요. 하지만 금방 그만 뒀어요. 사모님들도 다 다르잖아요. 대형 교회 사모님들은 돈도 많고, 아주 강한 사모님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분들은 저랑 관심사가 다르더라고요. 몇 번 갔었는데, 괜히 창피하기도 하고 웬지 그 모임에 소속감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거리감만 느끼고...그러니 어찌됐어요? 정말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 사모를 이해해 주는 상담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한 명도...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그저 속에 있는 것들을 꺾꺾 누르면서 하나님한테나 의지하는 것 뿐이지요.

(2) 속박

사모들은 자신이 살아온 사모로서의 삶을 설명하면서 공통적으로 ‘얼매여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속박,” “족쇄,” “억류되었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다. C 사모의 표현을 보면, “목사와 결혼했으니 이혼하지 않는 한은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남편이 목사이다 보니 이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D 사모는, “내가 죽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삶”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모들은 ‘해야만 하는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 사이의 간격이 너무도 크다고 말했으며,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 ‘하고 싶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는 삶이 힘들다고 하였다.

(3) 스트레스

면담을 한 사모들은 사모로서 경험한 좋은 면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를 겨우 이야기한 반면, 힘든 점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여러 가지를 나열했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사모의 삶이 “힘들다”고 표현했다. 그 힘든 이

유에 대해서는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 겹치는 것들도 많았다. 첫째는, 사모이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질 수 없고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했던 것이었다. E 사모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삶을 희생해야만 했어요. 내 삶은 내게 아니었지요. 내 삶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존재했지요. 나를 위한 건 없었어요. 내 시간? 내 돈? 내 삶? 그건 모두 교회를 위한 것이었지요.” 둘째로는 사생활이 없다는 것이었다. F 사모에 의하면, 성도들이 아무 때나 사택에 들어오고 심지어 냉장고도 열어보고 이런저런 잔소리를 한다는 것이었다. 목사와 사모의 가정은 마치 유리 집처럼 성도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고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사생활이나 비밀을 갖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세 번째로, 많은 사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했다. 항상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늘 돈 걱정을 했다고 한다. 점점 빚을 지게 되고 집을 줄여 나가면서 감당해 보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네 번째로, 사모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과 기대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고 하였다. 매일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새벽 예배, 항상 챙겨야 하는 교회 청소와 식사 등 교회의 상황에 따라 사모의 일은 다양하지만, 그런 일들이 사모가 감당하기에 너무 많고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면담 사모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나 질병을 호소하였다. 8명 중 4명의 사모가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말했고, F 사모는 온 몸의 면역계가 다 무너졌다고 했으며, G 사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과 불면증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였다.

(4) 남들의 시선과 판단

면담 사모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어려움 중 하나는, 성도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시선과 판단이었다. 사모들은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사모들은 그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문제는 그 기준이 애매해서 사람에 따라, 교회에 따라 다르고, 또 대부분은 사모들이 다 맞추기에는 너무 완벽한 기준을 기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모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도 자주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G 사모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교회에 있으면 숨도 쉬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도 항상 욕을 먹거든요…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저를 주시해 보는 시선을 느껴요…저 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늘 있지요.”

5) 대처 방법

(1) 인내

모든 면담 사모들은 사모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로 “인내”를 들었다. H 사모는 “인내는 사모의 필수 자질”이라 표현했고, A 사모는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결국 인내 뿐”이었다고 했다.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었고, 달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에 그저 참아내는 것이 사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고 모든 사모들은 고백했다. 다음 두 사모의 진술이 인내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다:

B: 그래서…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요. 참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 거 같기도 해요. 기다리고 견디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지요.

C: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저 울기만 했어요. 슬퍼서 울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다 포기하게 되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결국 이것도 나의 사명이니깐,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냥 나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견뎌야 하는 거죠. 내 인생은 울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의 연속이었던 거 같아요.

(2) 기도와 믿음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모든 사모들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 라고 대답했다. 말할 대상이 없었던 사모들에게 유일한 대화 상대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모들은 종종 오랜 시간동안 기도하곤 했다. D 사모는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시각에서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도 해요” 라고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E 사모는 “기도를 시작했다가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두컴컴해지고, 깜짝 놀라게 되요. 아, 내가 하루 종일 기도했구나. 그런 적이 아주 많았죠. 상황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수록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라고 했다. 어떤 사모들은 기도를 하면서 힘을 공급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반면, 어떤 사모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어 체념하게 되고 그냥 기도로서 마음을 달랠 뿐이라고 하였다.

(3) 자기 개발

면담 사모들 전부는 아니었지만 대부분(8명중 6명)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자기개발을 언급했다. 면담 사모들 중에는 피아노 교사, 고등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다. 이들은 직업을 통해 경제적인 유익도 얻었지만, 무엇보다 직장에 있을 때 만큼은 사모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기에 그 시간이 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F 사모는 이렇게 고백했다: “직장은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해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에요.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게 허락을 해 줬으니까요.”

또 어떤 사모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였다. 면담 사모들은 상담이나 사회복지, 신학 등을 공부했는데, 이들 역시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만큼은 사모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직장이나 학업을 하고 있지 않는 두 사모도 조만간 기회가 되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6) 사모여서 좋은 점

(1) 특별대우

몇몇 사모들은 성도를 포함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특별대우가 감사하고 좋다는 말을 했다. 이 특별대우에는 무엇보다 사모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과 존경이 포함되었다.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도 성도들이 “사모님, 사모님”이라 불러 주면서 존경해 주고 섬겨주는 것이 감사하고 좋다는 것이다. G 사모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뭐 목사님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도들은 저를 사모님이라 불러 주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성도들은 제가 사모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 주고 존중해 주잖아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또 다른 특별대우는 물질적인 섬김을 받는 것이었다. 목사님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근사한 식사를 대접 받는다거나, 성도들이 여행을 보내 준다거나, 명절 때마다 선물 상자를 보내 준다거나, 목사 자녀들을 위한 특별 선물을 챙겨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사모들은 이런 특별대우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2) 개인 신앙의 성숙

사모여서 좋은 점에 대한 질문에 공통적인 대답 중 하나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말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대화 상대였던 하나님과의 시간이 훨씬 더 길고 풍부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또한, 사모들은 모든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기대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는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H 사모는 자기가 모든 성도들 중에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은 성도일 거라고 말하면서 웃었다. 그만큼 설교를 많이 들었 으니 아무래도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 드린 횟 수도 가장 많으니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모들 역시 20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 새벽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 때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것, 모든 성경 공부 모임과 기도회에 참여한 것 등이 결국에는 자신의 개인 신앙을 더 깊게 한 것 같다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였다.

(3) 힘과 영향력

“사모로서 힘이나 영향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많 은 사모들은 당황해 했다. “힘이요? 사모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더 힘이 있지요” 라고 대답한 사모도 있었다. 직접적으로 사 모의 힘이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한 사모는 많지 않았지만, 자료 분석을 하면서 면담 사모들이 다양한 모습의 힘/영향력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 급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힘과 영향력’을 하나의 주제로 포 함시켰다.

몇몇 사모는 사모의 영적인 힘, 특히 기도의 힘에 대해 언급하였다. 사모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깊게 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 모의 기도는 힘이 있다고 하였다. 사모들은 교회, 성도, 목사님을 위한 사모의 기도는 목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힘 있게 말하였다. 또한 목사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목사 를 위한 기도는 사모의 특권이자 능력이라고 하였다. 사모의 기도가 목

사와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는 표현도 하였다.

또 몇몇의 사모는 성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언급하였다. 성도들이 사모에게 종종 이런 저런 어려움을 상담하는데, 그때 사모가 해 주는 조언을 성도들은 아주 진지하게 고려하여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했다. 또 때로는 사모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일부러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성도들에게 있어 사모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다.

또 어떤 사모들은 목사 개인에게 미치는 사모의 영향력을 지적하였다. 교회 의사 결정 기구인 당회의 수장이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결정에 사모의 의견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교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담임 목사는 가정에서 사모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함께 상의하기도 하는데, 그때 사모의 의견이 담임목사의 결정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A 사모는 이에 대해 “비공식적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파워”라고 표현했다.

또한 B 사모는 담임 목사 사모로서 부교역자 사모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힘에 대해 말하였다:

내가 담임 사모니까 부사모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요. 부사모들을 잘 돌보고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어쩔 때는 부사모들에게 중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결정을 제가 내리기도 하구요. 부사모나 부교역자가 잘 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지요. 어떤 걸 해라, 하지 마라, 시키기도 하구요. 부사모들이나 부교역자들에게 제가 어느 정도의 통제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B 사모가 말한 힘은 모든 사모들이 공유하는 특징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를 통해 사모들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계층이 나뉘어지고 그 계층에 따라 사모들의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진술이다.

4. 기독교 상담적 함의

필자는 한국 교회 사모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서, 사모들을 위한 상담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지금까지의 사모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모들의 일화나 회고록을 통해 사모들의 삶을 보여 주었으나 체계적인 질적 연구를 통해 사모의 삶의 핵심적 본질을 기술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비록 본 연구의 결과에는 그동안 사모들의 일화나 회고록을 통해 소개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체계적인 면담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모로서의 삶의 공통적이면서도 본질적인 핵심이라는 점에서 일화적 사례들과는 다르게 후속 연구에서의 주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사모들이 느끼는 사모로서의 삶의 좋은 점들이나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모로서의 힘과 영향력은 기존 일화나 회고록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는 사모 경험의 일면이라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사모들을 위한 기독교 상담에 관심하는 이들에게는 사모의 삶에 대해 오직 고통, 인내, 순종 등의 정형화된 이미지 뿐 아니라, 힘과 영향력이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면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목적대로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사모들을 위한 상담의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사모들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자가 사모의 삶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본 연구 결과는 이 첫 번째 단계를 잘 수행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실천 신학적 작업이 가능하게 해 준다. Osmer(2008)가 제시한 실천 신학의 과제에 의하면 두 번째 단계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술된 사모의 삶을 다

양한 관점과 이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공동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세 번째의 단계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실천 신학의 마지막 단계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소속된 모두가 힘을 합해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는 공동체이며, 이를 위해 모두가 희생하고 헌신한다. 하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역시 서로 돌봄을 주고 받으며 함께 치유하고 회복된다. 이 과정 속에서 사모들은 돌봄을 많이 제공하지만 적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은 사모 개인의 정신적, 영적 건강이라는 관점 뿐 아니라 사모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 사역의 건강하고 장기적인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의 좋은 본보기로 보여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돌봄의 주고받음에 있어서의 균형에 대해 잘 말해 주고 있다(누가복음 10:27-37).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행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잘 돌보아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인생을 그를 돌보는 일에 전부 바친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돌본 후에 그를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그가 가던 여행길을 마쳐 갔다.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다시 그를 돌아보러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도 충실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지만, 한편으로 자기 자신도 돌보고 자신의 삶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균형, 다시 말해 이웃 돌봄과 자기 돌봄 사이의 균형이 특히 사모들에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독교 상담자들은 사모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들을 위한 상담을 더욱 개발하고 그 기회를 넓혀야 할 책임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기독교 상담자들이 사모들로 하

여금 자기 돌봄과 이웃 돌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Ⅲ. 닫는 글

지금까지 필자는 사모들을 위한 기독교 상담을 더 풍성히 개발하기 위한 일차적 단계로 ‘사모의 삶에 대한 경험’에 대한 생생한 핵심적 본질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기술하였다. 즉, 필자와 면담을 한 8명의 사모들이 사모로서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였고, 그런 경험에 대해 어떻게 주관적으로 의미부여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기술하였다. 8명의 사모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6개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16개의 주제를 찾아내었고, 그것을 ‘사모의 경험’의 핵심적 본질로 제시하였다.

다시 한 번 요약하면, 사모들은 자신의 역할을 성도들의 어머니로, 또 목사 남편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로 생각했다. 그들은 목회자도 평신도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남편의 목회에 동참하였으며 목회 열매로 인해 기뻐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또한 사모로서의 위치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고백하였다. 그들은 사모이기에 겪어야 했던 힘든 점에 대해 나열하였는데, 마음을 터놓고 말할 대상이 없는 것, 속박된 느낌,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 등이었다.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인내,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학업이나 직업 등의 자기 개발이었다. 어려움도 있지만 사모이기에 경험한 좋은 일들로는 개인 신앙의 성숙, 성도들로부터 받는 특별대우, 그리고 나름의 힘과 영향력을 들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심층 기술은 8명의 사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에서 나온 것이므로 다른 모든 사모들의 경험이 이와 똑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모들도 각자 상황이 다르고 또한 사모들 내부에서도 계층이 나누어지며 각자의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연구 결과는 사모를 위한 기독교 상담에 관심하는 기독교 상담학자들에게, 사모들이 사모로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 뿐 아니라 특권과 힘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이 연구에 포함되지 못한 다른 사모들의 목소리를 담은 현상학적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그 연구들의 결과를 함께 비교 고찰해 볼 수 있다면 '사모의 삶'에 대한 핵심적 본질들이 더욱 면밀하고 풍성하게 기술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이렇게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얻은 '사모의 삶' 기술을 바탕으로, 사모들의 필요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기독교 상담 방법을 개발해 내어 사모들이 기독교 상담을 통한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김남준 (2008).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보람, 김사라형선 (2019).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영적 안락감의 조절 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3), 67-90.
- 김성은 (1991). 사모신학: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만으로는. *한국여성신학*, 6, 8-10.
- 반신환 (2000). 사모에 대한 목회 상담: 사모의 스트레스와 여성 친화적 목회 상담. *기독교신학논총*, 17(1), 291-312.
- 반신환 (2003). 사모 상담 기독교 상담. 서울: 한남대학교 출판부.
- 반신환 (2006). 목회자와 사모의 문화적 영향과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07-122.
- 설화영 (2004).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모.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 양혜원 (2013). 사모, 직분 아닌 직분. *기독교사상*, 20-27.
- 이건숙 (2013). 사모의 품격. 서울: 두란노.
- 이명선, 고문희, 손행미, 김주현, 강성례, 오상은, 박은영, 오세은, 장혜영 (2018). *질적연구 수행하기*. 서울: 수문사.
- 이은숙 (2010). *들꽃 사모의 노래*. 서울: 도서출판 kmc.
- 이희녕 (2007). *사모님 축복합니다*. 서울: 두란노.
- 장달윤 (2007). *성공적 목회를 위한 사모학*. 서울: 하늘기획.
- 장은진 (2008). 목회자 사모의 정신건강과 상담에 대한 요구도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6, 187-210.
- 전요섭, 황미선 (2008). *사모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훌륭한 사모가 되기 위한 지침서*. 서울: 쿠파.
- 정정숙 (1995). 사모의 사역과 훈련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62(1), 185-201.
- 침례회전국사모회 (2009). *예수 사모: 사모들의 신앙 에세이*. 서울: 좋은책터 굿글로벌.
- 현성희 (2007). *사모는 어떻게 사나*. 서울: 바이블 리더스.
- Browning, D. S. (1996).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 alternatives for psychology*, 48–71.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Los Angeles: SAGE Publication.
- Giorgi, A. (1975). An application of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In A. Giorgi, W. Fischer, & E. Murray (Eds.), *Duquesne studies in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 82–103.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Husserl, E. (1964). *The idea of phenomenology*. The Hagu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 Husserl, E. (1900,1901,1970). *Logical investigations*. Translated by L. Findla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First published in German as *Logische Untersuchungen* by M. Niemeyer, Halle in 1900–1901).
- Miller-McLemore, B. (2010). Practical Theology. In C. H. Lippy & P. W. Williams (Eds.), *Encyclopedia of religion in America*, Vol. 3, 1739–1742. Washington, DC: CQ Press.
- Moustakas, C. E.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Sage.
- Osmer, R. (2008).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
- Patton, J. (2005). Pastoral Counseling. In R. Hunter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expanded edition*, 849–854. Nashville: Abingdon Press,
- Swinton, J., & Mowat, H. (2006). *Practical theology and qualitative methods*. London: SCM Press.
- Van Manne,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Abstract 】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lived experiences of
pastors' wives: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Song, Kyung Hwa

World Mission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ores lived experiences of Korean pastors' wives—*samonims*. While *samonims* provide counseling for their congregants, they hardly become recipients of counseling. It is Christian counselors' responsibility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samonims*. For this, the first task is to understand *samonims*' lived experiences. I employ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for this because the purpose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is to provide a thick description of the essence of a phenomenon. I performed interviews with eight *samonims*. Then, I analyzed the interview data through phenomenological procedures. Finally, I identified six categories and sixteen themes. Description of these themes serves as a thick description of the essence of *samonims*' lived experiences.

The research result indicates: *Samonims* regard themselves as mothers for congregants and invisible helpers of their husbands; They participate in and experience both joy and worry by their husband's ministry; They find difficulties in their family relationships—in raising their children and in their marital relationships; They enumerate their sufferings: having no person to talk with; feeling of being trapped; high level of stress; and attention and judgments by people; Their coping strategies are patience, prayer to God, and self-development; *Samonims* identify benefits of being *samonims*: special treatments and growth of personal faith. Also, the interviewees recognize their power as *samonims*.

Key words: *samo*(pastor's wife), Christian counsel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thick description